

국외출장계획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김엄지	직급	전문연구원 (실장)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유지원	직급	위촉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p>○ 관련사업 :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일반) - (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p> <p>* 「2023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사업」(용역)의 “국제 네트워킹 구축 및 국제협의체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출장이 계획되었으나, 용역사업 계약 체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바 (2월 중 진행 예정) 용역계약 체결 이후 출장비정산 진행 예정</p> <p>○ 출장목적</p> <p><input type="checkbox"/> ‘북극써클 일본 포럼(Arctic Circle Japan Forum, 이하 ACJF)*’ 참석</p> <p style="margin-left: 20px;">* 2013년부터 매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키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최대 국제 포럼인 ‘북극써클 총회(Arctic Circle Assembly)’보다 작은 규모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 ‘북극써클 지역포럼’이 일본에서 개최되며 ‘북극써클 일본 포럼’으로 명명</p> <p style="margin-left: 20px;">* <u>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전략4) 다원적 국내외 협력생태계 조성 (4.1) 국가·사회적 협력 채널 구축, (4.2) 국가 간 양·다자 협력 확대, (4.3) 민-관 국제협력 다변화 등 정책적 이행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u></p> <p style="margin-left: 20px;">* 「2023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사업」 (용역)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 북극권 주요 국제포럼(북극프론티어, 북극서클)에 참여하여 사무국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북극 정책 홍보 추진 포함</p> <p style="margin-left: 20px;">○ 북극권 및 아시아 대륙 비북극권 국가의 현 북극 관련 정치·경제·과학 분야 이슈 파악</p> <p style="margin-left: 20px;">○ 포럼 참석 계기 북극권·비북극권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확대</p> <p style="margin-left: 20px;">○ 포럼 주최국 일본의 북극 전략 및 국가 계획 등 파악</p> <p style="margin-left: 20px;">○ 극지연구소·외교부·해양수산부 주최 세션 참가 및 개최 지원</p> <p><input type="checkbox"/> KMI-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이하 AEC) 협력 및 업무 협의</p> <p style="margin-left: 20px;">○ AEC 세션 ‘북극과 아시아 음식 연계: 장벽 부수기(Arctic and Asian Food connections: Breaking down barriers)’ 개최 지원 및 KMI 참여</p> <p style="margin-left: 20px;">○ 산업체 간 네트워킹 기반의 KMI-AEC 양자 미래 협력 방안 논의</p> <p><input type="checkbox"/> 북태평양북극연구기관커뮤니티(North Pacific Arctic Research Community, NPARC) 세미나 관련 협의</p> <p style="margin-left: 20px;">○ 일본 내 NPARC 협력 기관 겸 사무국 (홋카이도대학)측과의 2023 NPARC 세미나 개최 관련 업무 협의</p> <p style="margin-left: 20px;">○ KMI와 홋카이도대학 간 북극 연구 사업 발굴 및 연구 협력 가능성 타진</p> <p style="margin-left: 40px;">* 북태평양북극연구기관협의회(NPARC)는 KMI의 주도 하에 한중일 북극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네트워크로 3국 간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14년 설립, KMI가 한국측 사무국을 맡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정책 지원</p>					

	○ 북극권 국가·비북극권 국가와의 면담 개최 관련 지원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 <input type="checkbox"/> 출장지 대체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탁)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	성명	보유 마일리지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
	김엄지	대한항공 : 0	미활용	마일리지 부족
	유지원	대한항공 : 0	미활용	마일리지 부족
출장기간	2023.03.03(금) ~ 2023.03.06.(월) (3박 4일)		출장지	일본 (도쿄)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3.03(금)	① 김엄지 실장 출발 일정		
		부산 → 김포	자차 이동	-
		김포(12:10) → 도쿄(14:10)	항공 이동	KE5707 (일본항공-대한항공 코드쉐어)
		② 유지원 연구원 출발 일정		
		부산(08:45) → 김포(09:45)	항공 이동	KE1806 (대한항공)
		김포(12:10) → 도쿄(14:10)		KE5707 (일본항공-대한항공 코드쉐어)
	03.04(토)	오전~오후 : 일본 도쿄 Toranomom Hills For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지연구소 주관 북극씨클 일본 포럼 세션 참석 및 지원(09:00~10:00) 그림손 전 아이슬란드 대통령 면담 (10:20~10:40) 아이슬란드 북극대사 면담 (10:45~11:30) AEC 사무총장 및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면담 (14:00~15:00) KMI-홋카이도대학 간 NPARC 세미나 개최 관련 업무 협의회 (16:30) 일본 북극대사, 일본 북극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ch, NIPR) 면담 (17:30~18:00) 북극씨클 일본 포럼 참석 (1일차) 	도쿄 현지 체류
	03.05(일)	오전~오후 : 일본 도쿄 Toranom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극씨클 일본 포럼 참석 (2일차) 	도쿄 현지 체류

		Hills Forum		
	03.06(월)	오전~오후 : 일본 도쿄 Toranomom Hills For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극써클 일본 포럼 참석 (3일차, 폐막) 본회의 2번째 순서 : AEC 주도 세션 참석 (9:00~10:45) 	도쿄 현지 체류
		도쿄(19:30) → 부산(22:00)	항공 이동	KE2132 (대한항공)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무①	23.03.04.(토)~06.(월), 북극씨클 일본 포럼 참석
수행계획	<input type="checkbox"/> 북극씨클 일본 포럼(23.03.04.~06.) 주요 세션 참석 - 참 석 자 : 북극권 및 비북극권 국가의 정부, 학계, 업계, 언론계 등 약 2-300명 규모 참석 예정 - 수행 내용 · 북극권 국가 및 북극이사회 옵서버국·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 중심) 정부·기업·연구기관 주최 세션 청취 · 북극권 국가 및 일본 비롯 아태지역 국가들의 북극 전략·협력·국가정책·비전 파악 · 러-우 전쟁 시대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북극 협력 방향 및 현황 수준 파악
수행결과	① 포럼 개최식 <input type="checkbox"/> (그림손 의장) 환영사를 통해 일본 정부, 사사카와 재단, 일본재단의 금번 포럼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일본의 고위급 및 의회 인사의 참여는 북극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일본의 북극에 대한 논의의 장에 기념비적인 기여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input type="checkbox"/> (게이코 나가오카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인류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북극은 지구온난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인바, 일본 정부는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를 통한 관련 인재 육성, △2026년 북극 관련 연구기관 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공동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함 <input type="checkbox"/> (Guolaugur Por Pordarson 아이슬란드 환경에너지기후장관) 2019-2021간 북극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며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의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북극 관련 기여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고, 금번 포럼이 일본에서 개최된 점과 정계 고위급 인사들을 포함하여 과학계, 산업계, 민간 등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를 기쁘게 생각한다 함 <input type="checkbox"/> (아키로 니시무라 일본 환경대신) 기후변화는 북극 지역 거주자, 생태계, 인류 및 지구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2050년 경에는 여름에 빙하를 볼 수 없다는 예측도 있는바, 온실가스의 즉각적인 감축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현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재생에너지, 수소 등을 통해 전환시켜 나가고자 하며, 환경 및 북극연구기관들과 협력 중인바, 금번 포럼이 블랙카본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② 주요 세션 내용 1) 한·일·중 간 북극대화 세션 (본회의) - 일 시 : 3.4.(토), 15:15~15:50 - 참 석 자 : (좌장) 올라뮈르 라그나르 그림손 북극씨클 의장, 사카구치 히데 일본 해양정책연구소 소장 / (패널) 홍영기 극지협력대표, 타케와카 게이조 일본 국제경제-북극대사, 가오 평 중국 북극특별대표 -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3개국은 자국의 북극 정책 기조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3국 간 북극협력의 재개 필요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단된 북극이사회의 활동 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개 필요성 등을 강조함

- (한국) 한국은 △과학연구 등을 통해 북극이사회 활동에 기여 중이며, △북극 지역 내 과학연구 능력 확대를 위해 차세대 쇄빙선 건조 등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쉬핑(green shipping)을 통한 블랙카본 및 탄소배출 감축 추진, △지난 해 제1차 CAOFA 총회 개최('22.10월, 인천)에 이어 금년 6월 인천에서 제2차 총회 또한 개최 예정임을 소개함
- (일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후변화를 인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 중 하나로 공표하였으며, △북극 정책은 해양 정책의 일부로서,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세 축으로 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쇄빙연구선 건조, △북극 관련 연구소 설립 및 다양한 국가들과 연구과제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 (중국) 중국 정부는 △2018.1월 최초로 북극정책백서를 발간 및 발표한 바, 북극의 이해, 보호, 지속가능한 활용 및 북극 관련 국제 거버넌스 참여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북극이사회의 옵서버로서 동 이사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를 기대한다고 함

2) “신뢰구축: 북유럽 북극권 국가 및 동북아시아 세션” (본회의)

- 일 시 : 3.5.(일), 11:30~12:30

- 참 석 자 : 홍영기 극지협력대표, 켄지 이세자키 도쿄외대 교수, 노르웨이북극대학 거너 렉비그 부 교수, 래스무스 버텔스 교수, 마크 랭테인 부교수 등

- 주요 내용

- 참석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래한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가 주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발전해 온 국제정치의 역사, △러시아와 여타 소국간 국력차이로 인한 신뢰구축의 어려움 등을 논의함
- (홍영기 대표 발언)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한국과 동 이사회 간 신뢰는 북극 관련 활동에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한국은 △1991년 북극에 처음 도달한 이래 2022년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 공표까지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북극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북극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친환경 해운(green shipping)의 실현을 위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 △북극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북극의 지속가능성확보가 가능한 경제 활동 추구, △북극 관련 전문가 및 과학자들과의 교류, △CAOFA 가입을 통한 북극해의 지속가능한 어업 추구, △3.8. 개최 예정인 한-스웨덴 북극 협의회를 포함하여 양자 북극협의회 개최 현황, △북극 원주민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교육 또는 장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소개함

3) “옵서버 국가들의 북극이사회 미래에 대한 기여” 세션 (본회의)

- 일 시 : 3.5.(일), 14:15~15:15

- 참 석 자 : (좌장) 에반 블룸 윌슨센터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발표자) 홍영기 극지협력대표, 타케와카 게이조 일본 국제경제-북극대사, 가오 펑 중국 북극특별대표, 샘 탄 싱가포르 북극특사, 몬티 칸나 인도 북극대표 및 전 해군소장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주요 내용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북극이사회의 아시아 옵서버 국가들의 북극이사회에 대한 기여 현황 및 향후 계획,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북극이사회에 집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북극이사회 재개 시 소통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한국) 2023년은 한국이 북극이사회 옵서버로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은 현재 북극이사회 내 6개 워킹그룹 중 5개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북극이사회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공표하였고, △한국 교유의 위성시스템(KPS)을 북극 연구에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건조중인 차세대 쇄빙선 완공 시 기존 아라온호를 포함하여 북·남극에 각각 쇄빙선을 한 대씩 배치하여 활용하고, △과학 분야 연구 등을 통해 옵서버 국가로서의 기여를 지속할 계획임
- (일본) 일본 정부는 2015년 최초로 북극 정책을 발표하고 2018년 북극정책을 제3차 해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이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이후 다양한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2022년 이후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금년 5월 노르웨이가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승계한 후 북극이사회의 활동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함
- (중국) 중국은 다양한 워킹그룹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극이사회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중국 하이난에서 북극동식물보전(CAFF) 워킹그룹 협력사업 중 하나인 북극 이동생 물새 이니셔티브(AMBI) 회의를 개최했는데 캐나다에서 호주에 이르는 물새 이동경로 국가에 한중일이 포함되어 이에 참여함. 또한, 옵서버 가입 10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감하는바, 향후 △과학분야, △한일중 3국이 모두 회원국 지위를 득한 CAOFA를 통한 어업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북극으로의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봄
- (인도) 인도는 '22.3월 북극정책을 최초로 발표하고 당해 10월 북극서클 총회에서 이를 소개한바, 동 북극정책은 △과학연구, △기후 및 환경보호, △경제 및 인간개발, △교통 및 연결성,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국내 역량강화의 6개 기둥을 기반으로 하며,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제2회 인도-노르딕 정상회의 개최, △주덴마크인도대사 그린란드 총리 예방, △덴마크 국왕부부의 인도 방문 및 인도-덴마크 녹색전략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 중에 있음

4)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 연설 (본회의, 3.6.(월) 12:00~12:15)

- 하야시 외무대신(타케와카 북극대사 대독)은 △일본은 G7 의장국으로서 규범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지지하는바, 북극에서도 법치가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북극정책을 금년 수립할 일본 해양정책 기본계획의 중요한 기둥(Pillar) 중 하나로 설정할 것이며, △향후 일본 쇄빙연구선을 국제적 관측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북극 관련 논의 및 문제 해결에 있어 북극이사회는 여전히 중요한만큼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②	23.03.04.(토) 오전, 극지연구소·외교부·해수부 주최 세션 참가 및 개최 지원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지연구소·외교부·해수부 주최 ‘북극에서의 지식 기반 협력 및 신뢰구축 :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Knowledge-based cooperation and trust-building in the Arctic : The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CAOFA))’ 제하 세션 참가 및 개최 지원 - 참 석 자 : 출장자 김엄지 실장, 유지원 연구원(KMI, 세션 참석 및 청취) 및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 대표, 신형철 극지연구소 부소장, Rebecca Robbins Gisclair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 북극프로그램 책임자, Akiho Shibata 일본 극지 협력 연구 센터(Polar Cooperation Research Center) 센터장, Evan Bloom 월슨센터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 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 준비 지원 · 북극·비극권 국가, 북극 원주민, 시민사회 협력 기반 CAOFA 이행 관련 협정 당사국 경험 공유 및 전문가 견해 내용 청취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에서의 지식 기반 협력 및 신뢰구축 :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Knowledge-based cooperation and trust-building in the Arctic : The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CAOFA))’ 제하 세션 참가 - (세션 주요 내용) 발표자들은 △중앙 북극해의 어종, 자원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델 발굴 필요성, △동 지역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는 원주민 지식과 역할의 중요성, △CAOFA 법치 기반 거버넌스, △CAOF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동 협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과학자, 원주민 공동체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홍영기 극지협력 대표 발언 요지)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CAOFA) 현 부의장으로서, 동 협정이 해당지역 수산자원 등의 보호 등 북극 관련 논의의 중요한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③	23.03.05.(일) 오후, NPARC 개최 관련 일본측 사무국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홋카이도 대학 북극연구센터측 NPARC 업무 담당자 면담 - 참 석 자 : 김엄지 실장, 유지원 연구원, 나츠히코 오츠카 홋카이도대학 북극연구센터 교수 및 홋카이도대 측 실무진 등 -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 개최되어온 NPARC 세미나의 금년도 개최 가능성 검토 및 개최 시기, 형태, 규모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북태평양북극연구기관협의회(NPARC)는 KMI의 주도 하에 한중일 북극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네트워크로 3국 간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14년 설립, KMI가 한국측 사무국을 맡고 있음. 현재 러-우 전쟁으로 인해 2022년 계획되었던 일본 사무국 측의 NPARC 개최가 취소됨 · 러-우 전쟁 상황에서 북극권-동북아3국 협력 기조 하의 NPARC 세미나 개최 시 러시아를 배제한 개최 필요 여부 논의 및 해당 의제에 대한 일본측 의견 청취 · 러-우 전쟁 이후의 '포스트 러-우 전쟁시대'를 대비하여, 중장기적 NPARC 세미나 개최 및 한중일 NPARC 세미나 사무국간 협력 방향 재검토 · 러-우 전쟁 하에서의 홋카이도대 북극연구센터의 북극 연구 현황 및 러시아와의 협력 현황 수준 파악 · KMI-홋카이도대 간 공동 북극연구협력 가능 분야 및 협력 방안 모색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북극연구센터 (Hokkaido University Arctic Research Center)측과의 2023 NPARC 추진 협의 - (HU) 러-우 사태로 인해 NPARC 세미나가 2022년 개최되지 못하고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생각이며, 올 2023년에는 홋카이도 현지, 홋카이도 대학교 북극연구센터 내에서 NPARC 오프라인 진행 혹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HU) 8월 중순에는 홋카이도 지역에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을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시기를 피해 6~7월 사이 혹은 9월 경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 2일 행사 일정으로 진행하여 1일차에는 NPARC 세미나를 진행하고 2일차에는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홋카이도 지역 일일 견학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세미나 주제 관련 HU측 제안) 현재로는 △포스트 러-우 전쟁 시기 비북극권 국가와 북극권 국가간 협력 이슈, △북극을 둘러싼 새로운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상황에 대한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들의 대응 방안 등을 세미나 주제로 선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I의 Youth session 제안) KMI 내에서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북극아카데미” 및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스 세션(Youth session)을 이번 NPARC 세미나의 일부로 새롭게 만들어보는 것을 제안하는 바임. 온라인으로 해당 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북극 이슈 및 본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북극 연구 내용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HU 답변) Youth session 진행은 좋은 생각으로 보임. 다만, 초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연구 분야를 특정할 것인지, 혹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생을 초청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논의 방향 및 2차 논의 시기) 4월에 SIIS측(중국 NPARC 사무국), 홋카이도 대학, KMI 참가가 모두 모여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고 △구체적 진행 시기, △세미나 아젠다 선정, △유스 세미나 진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해당 내용들은 세미나 시작 2달 전에는 모두 결정 되어야 할 사항임 □ 일본 북극 연구 현황 및 일본 극지 정책 관련 정보 수집 - (HU) 현재 홋카이도 대학교 내에는 사실상 북극 분야 연구자가 많지 않고, 과학 분야 연구자가 대다수이나 최근 사회·인문적 관점에서의 이슈 및 원주민 관련 이슈, 정치 분야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신진 연구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함 - (HU) 일본은 곧 새로운 해양 정책(Ocean Policy)를 발표할 예정이며, 초안에 북극 정책 관련 내용도 포함될 예정임. 해당 정책 초안 문서는 다음 달(4월)경 공개될 예정이고, 일본 국내 여론 조사를 이후 한 달간 진행한 뒤 최종 문서가 2023년 여름에 마련될 것임. 동 정책안은 이전 정책과 비교했을 때 내용상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신규 북극 쇄빙 연구선 건조 사업(26 진수 예정)에 대한 내용을 정책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신규 쇄빙 연구선을 활용한 △국제 북극 협력, △북극 과학 연구, △지속가능한 북극 이용(경제·산업적 관점) 등을 달성하고자 함 - 특히, 해당 신규 연구 쇄빙선을 국제적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 과학 연구자들의 연구 협업을 위한 인프라로 이용하고자 함
업무④	23.03.04.(토) 오후, 북극경제이사회 주도 ACJF 세션 참석(3.6.) 및 기관 차원 협력 관련 논의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AEC) 주도 세션 참여 및 협력 논의 - 참 석 자 : 김엄지 실장, 유지원 연구원, Mads Frederiksen AEC 사무총장, 노르웨이 통산산업수산부 산하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 이하 NSC), 노르웨이 수산물 공급업체 관계자, 구본길 셰프(비디오 참여), 일본 요리학교 관계자 및 세션 참석자 등 - 수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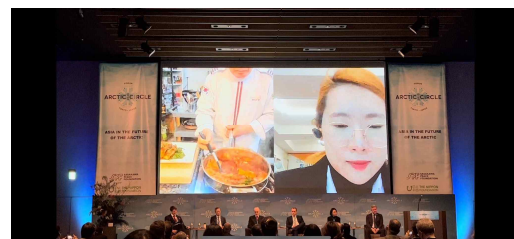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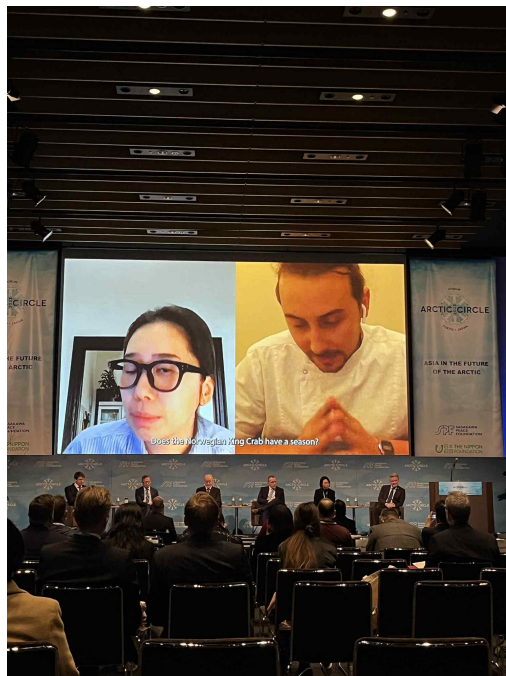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C 주도 '북극과 아시아 음식 연계: 장벽 부수기(Arctic and Asian Food connections: Breaking down barriers)'제하 세션* 참여 및 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 개요)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북극권의 수산물 공급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북극권-아시아 기업 간 협력 장려를 위해 △(북극 수산물을 사용한 한국 요리 비디오 상영) 구본길 한국 셰프가 노르웨이산 연어를 주재료로 하는 한국 음식을 비디오로 선보이고(준비 과정에 KMI 참여) △(패널 토론)북극권 생산 수산물의 아시아 수출 잠재력에 대한 토론 진행 · AEC, NSC 등 세션에 참가한 기관들이 지닌 아시아 수산물 수입 시장에 대한 견해 및 전략 확인 · 세션 참석 계기 차기 AEC 의장국 노르웨이 체제 하의 AEC 사업 추진 계획 등 정보 파악 · KoARC-AEC MOU('23.5.) 체결 기점 이후 KMI-AEC 간 추진 가능 협력 사업 관련 AEC 의견 조희
수행결과	<p>① AEC 주도 ACJF 세션 참여 (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3.6.(월), 9:00~10:45 (본회의 세션 중 진행) - 참 석 자 : 김엄지 실장, 유지원 연구원, Mads Frederiksen AEC 사무총장, 노르웨이 통산산업 수산부 산하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 이하 NSC), 노르웨이 식품 역량 센터(Northern Norway Competence Center MAT(Nordnorsk Kompetansesenter MAT, 이하 NNKM), 노르웨이 수산물 공급업체 관계자, 구본길 셰프(비디오 참여), 일본 요리학교 관계자 및 세션 참석자 등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권 음식으로 대표되는 노르웨이산 해산물 재료(노르웨이산 연어 등)를 일식, 한식으로 각각 조리한 일식 셰프, 한식셰프와의 요리 비디오를 상영 및 청취하며, 참석자들은 북극권의 신선한 식재료를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혹은 아시아 요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시아 시장 내에서의 북극 식재료 인기 및 입지에 대해 동향을 소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 - 특히, 북극권에서의 가장 유명하고 인기있는 해산물 혹은 식재료는 '연어'로 노르웨이 연어가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 일본은 의외로 핀란드산 연어를 다량 수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은 주로 큰 사이즈의 노르웨이 연어를 수입하고 있음 □ KMI는 동 세션의 한식셰프와의 요리 비디오 촬영을 AEC와의 협력 하에 진행하였으며, 노르웨이 연어를 활용하여 만든 '한국식 연어찜'의 요리 영상에 대한 현장 반응은 매우 뜨거웠음 <p>② AEC-NNKM-KMI 간 한·노 북극 수산물 관련 협력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자 : 김엄지 실장, 유지원 연구원, Mads Frederiksen AEC 사무총장, NNKM 3인 등 - 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북극써클 재팬포럼 내 "북극과 아시아 음식: 장벽 부수기" 세션 진행 관련 - (AEC 및 NNKM)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이하 AEC)가 주도하여 주최의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 이하 NSC), NNKM*을 비롯한 한국의 KMI, 일본측 셰프 등이 참여한 금번 세션이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KMI측에 사의를 표함 * NNKM은 노르웨이 모조엔(Mosjøen) 농업 및 자원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산하의 독립적 기관으로 노르웨이 정부 기관과 긴밀한 협력 하에 업무를 진행하며, △노르웨이 국책 연구소와의 협업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을 통한 노르웨이 고유의 요리 브랜딩, △노르웨이 기업들의 노르웨이산 재료 기반 요리 레시피 개발 및 메뉴 개발 컨설팅, △학자, 기업인 등을 두루 초청하는 “Arctic Food” 심포지움 연례 진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노르웨이 요리 및 음식을 세계에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금번 구분길 셰프와의 요리 비디오 촬영 작업에 있어 노력 실무를 담당함

- 북극지역의 순록 고기를 활용한 북극-아시아 연계 음식 프로젝트(Food project) 추진 제안
 - (KMI) 금번 북극써클 일본포럼 세션을 위해 노르웨이 연어를 활용하여 한국 요리 비디오를 촬영한 것에 이어, 유사 연계 프로젝트로서 한국 셰프를 섭외하여 북극 순록 고기를 사용한 요리를 올 2023년 12월 부산에서 개최할 “북극협력주간”에 선보이고, 한국 청중이 북극 원주민을 비롯 북극 거주민들이 다량 소비하는 순록 고기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을 제안하는 바임
 - (놀측)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미위원회(~~) 및 사미족 커뮤니티로부터 순록 고기를 공수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함. 다만 순록 고기는 영국 등지로 수출이 소량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 보임. KMI측에서도 한국으로의 수입 절차에 대해 살펴봐주시기를 바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⑤	23.03.04.(토)~06.(월) 중,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정책 지원 (미정, 외교부KMI·극지연 등을 중심으로 정부대표단 구성 예정)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권·비북극권 국가와의 북극 이슈 관련 양자 면담 개최 지원 및 참석 - 참 석 자 :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 대표, 신형철 극지연구소 부소장, 정지훈 극지연구소 국제협력실 실장, 김엄지 KMI 실장, 유지원 KMI 연구원 등 - 면담 의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권 국가의 북극 전략 파악 및 비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가능 분야 협의 ·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노르웨이, '23~'25)체제 하의 북극권 국가 북극이사회 활동 계획 파악 · 한국의 북극 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협력 사업 등 공유 · 일본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활동 계획 정보 수집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그림손 전 아이슬란드 대통령 겸 북극서클 의장 면담 (3.4.(토), 10:20~1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자 : 그림손 전 아이슬란드 대통령, 홍영기 극지협력대표, 김진희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사무관, 신형철 극지연구소 부소장, 정지훈 극지연구소 국제협력실장, 김엄지 KMI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실장, 유지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 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손 의장은 10년 전 한국 정부가 북극이사회 옵서버로 가입했을 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북극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동 분야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도 또한 높아졌다고 평가함 - 특히, 최근 한국은 △북극 관련 정책의 가시성 및 리더십 증가, △북극 과학연구 분야에서의 역할 강화, △한국의 제1차 CAOFA 총회('22.11월, 인천 극지연구소) 개최, △북극서클 한국포럼('18.12월, 서울) 개최 등 북극 관련 논의에서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본다고 함 □ 의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 10월 레이카비크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극서클 총회"에 우리측 장관급 이상 고위급 참석을 요청하고, 작년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1차 CAOFA 총회 및 금년 6월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CAOFA 총회 결과 관련 북극서클 총회에서 우리측과 공동세션 개최를 제안함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 요소에도 불구하고 북극서클 내 EU, 미국 등 블록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 감안 시, 아시아 국가들의 활약이 더욱 필요하며 일본 등 여타 국가 장관급에 대한 "북극서클 총회" 초청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참고로, 일본은 금번 포럼 개최 준비 과정에서 북극 관련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으며 4명의 현직 각료와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은 일본의 적극적인 북극문제 관여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함
- 이에 홍영기 대표는, 우리측 장관급의 북극서클 총회 참석 관련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답하였으며, 금년 10월 아이슬란드 개최 북극서클 총회 계기 CAOFA 관련 우리측과 북극서클측 간 세션 공동개최 추진을 환영하며, 기타 우리측 과학자들의 참여 확대도 지금부터 북극서클 사무국과 소통하며 함께 추진하겠다고 함

② 아이슬란드 북극대사 면담 (3.4.(토), 10:45~11:30)

- **참 석 자 :** (우리측) 홍영기 극지협력대표, 김진희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사무관, 신형철 극지연구소 부소장, 정지훈 극지연구소 국제협력실장, 김엄지 KMI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실장, 유지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 (상대측) Petur Asgeirsson 북극대사, Stefan Haukur Johannesson 주일아이슬란드 대사
- **수행 내용**
 - (북극이사회 동향) Asgeirsson 대사는 5.11. 북극이사회 의장국 승계(현 러시아 의장국으로부터 차기 의장국인 노르웨이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에서 각료급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대신에 화상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장관들 대신 북극대사들이 참여하는 대안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함 (**동 소식의 대외 공개 자제를 당부**)
 - 다만, 회원국들은 여전히 북극이사회의 기능이 유지되길 희망하는바, 어떤 방식으로 북극이사회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그린 쉬핑) 홍영기 대표는 한국이 북극 지역 블랙 카본 감축 방안으로 수소 등 대체연료를 활용한 그린쉬핑(Green Shipping)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작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북극협력주간 계기에 아이슬란드 대표단이 전기 추진 어선 관련 우리 조선 기업을 접촉하고 한국 측의 관심을 확인한바, 양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함
 - (공동연구 참여 제안) Asgeirsson 대사는 아이슬란드와 중국이 아이슬란드 Karholl 지역에 2018년 공동으로 설립한 중국-아이슬란드 북극 공동관측소(CIAO)를 활용한 고층대기 등 북극환경 관측활동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한바, 우리측은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함
 - (제3차 한-아이슬란드 북극협의회 개최 추진) 홍 대표는 북극 협력이 다양한 과학 분야 및 에너지 전환 등으로 확대중인 추세를 감안, 양국 북극 관련 기관 및 대학 간 과학 분야 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1) 북극서클 총회 계기 양국 간 북극협의회 정례화, 또는 2) 북극협력주간 계기 아이슬란드측 관계자의 한국 방문 및 양자 북극협의회 개최를 제안함
 - * 한-아이슬란드 북극협의회 개최 현황 : 1차('16.6., 서울), 2차('18.10., 레이캬비크)
 - 아이슬란드 측은 금년 10월 개최되는 북극서클 총회 계기 양자 북극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양측은 구체적인 사항을 향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③ 일본 북극대사, 일본 북극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ch, NIPR) 면담 (3.4.(토), 17:30~18:00)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참 석 자 : (우리측) 홍영기 극지협력대표, 김진희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사무관, 신형철 극지연구소 부소장, 정지훈 극지연구소 국제협력실장, 김엄지 KMI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실장, 유지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 (상대측) 타케와카 케이조 일본 국제경제·북극대사, 야마고 타카히로 외무성 우주해양안보정책과 수석사무관, 기무라 하지메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연구원
- 수행 내용
 - (홍영기 대표가 한일중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가능성을 문의한데 대해) 타케와카 대사는 내부검토 중이라며, 일측의 북극 관련 행보는 북극이사회 활동 재개 및 전개 양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함
 - (홍영기 대표가 한일 양자간 실질적 북극협력 방안을 문의한데 대해) 일본측은 정부간 협력에 비해 기관 또는 연구자 간 협력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태평양 북극그룹(Pacific Arctic Group; PAG)을 기반으로 한 6개국* 간 쇄빙연구선을 활용한 북극해 연구협력, △아시아극지과학포럼(Asian Forum for Polar Science; AFoPS)을 기반으로 한 한·일·중·인도·말레이시아·태국 극지연구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 등 현황을 공유함
- 특히, **우리측 KMI**는 2014년부터 KMI의 주도로 한일중 3국간 북극 관련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네트워크로서 KMI,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소(SIIS), 홋카이도 대학교 북극연구센터(Arct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가 각국의 사무국이 되어 3국간 **북태평양북극연구기관협의회(NPARC)**를 설립 및 운영 중이며 금년 일본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을 설명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